

# 지속가능 생태도시 종합계획 개선 나서

### 전주시·시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 생태도시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개선 워크숍 개최

전주시가 시정 핵심가치인 '생태'와 전 세계적인 화두인 '탄소중립'을 바탕으로 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개선에 나선다. 특히 기존 계획에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충, 그린 리모델링과 같은 실행과제를 대거 추가하고 각 실행과제가 상호 연계돼 시너지가 발휘될 수 있도록 공을 들이기로 했다.

전주시와 전주시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이하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는 22일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올마당에서 생태도시 종합계획 가이드라인 개선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주시 생태도시민관협력기구는 시민, 전문가의 참여와 행정부서의 협업을 생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4월 출범한 기구로, 하천과 녹지, 교육, 에너지, 교

통, 도시계획 등 6개 분야 실행기구를 통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시가 지난 2016년 2월 수립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5년간 운영 결과를 분석하면서 세부 실행계획 중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점검하고 수정하기 위해 열렸다.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시민이 함께 한다(시민이 참여해 만들어가는 도시) ▲탄소를 줄인다(탄소를 줄여 미래 위협으로부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도시) ▲성장을 관리한다(양적 확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도시) ▲숲을 넓힌다(단절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도시) ▲길을 공유한다(자동차보다 사람이 중요시되는 도시) 등 5대 목표를 바탕으로 61개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다.

'탄소를 줄인다' 분야의 경우 ▲건축물 리모델링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수립 ▲화석연료 차량 줄이기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반시설 확대 ▲자전거·시내버스가 우선하는 교통체계 구축 ▲1회용품 사용 최소화 ▲우유팩, 아이스팩 등 자원 재이용 촉진 ▲저탄소 농업 활성화 ▲임지별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의무화 등의 실행과제가 논의됐다.

'숲을 넓힌다' 분야에서는 도시녹지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과 생태숲, 바람길숲 등 보행녹지 특화공간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길을 공유한다' 분야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조성,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도입 등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성장을 관리한다' 분야에서는 생활권 계획은 통합 도시관리와 기존시가지에 생활SOC공급을 통해 도시의 확장을 관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워크숍을 통해 논의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나 개선·활용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16년 수립된 생태도시 종합계획은 수립 당시와 현재 상황이 달라진 만큼 수정·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의 혁신적인 사례를 만들고, 미래 세대의 환경을 지켜내기 위해 민·관 전문가들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 FM 93.5MHz서 전주공동체 라디오 송출

###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공모' 선정 시민 설명회·공간 구축 등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개국

내년 상반기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맞추면 전주공동체의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공동체라디오방송 신규허가 공모'에서 (사)전주공동체라디오(대표 김은규)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전주공동체라디오는 시민 설명회와 공간 구축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식 개국을 통해 FM 93.5MHz에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공동체라디오가 전국에 시범 사업으로 도입된 지 17년 만에 전북지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성과로, 주민주도형 소통 채널을 확보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주공동체라디오는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보와 이슈를 생산하고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주공동체라디오와 전주공동체라디오방송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시는 지난 4월 전북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스튜디오와 송신탑 설치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전주공동체라디오 신규 허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전주 시민미디어센터를 비롯한 10여 개의 미디어 단체가 힘을 모았다.

/김윤상기자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움서(서)감서(서)'로 지난달까지 총 105만9553권의 도서가 대출·반납됐다.

##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움서감서' 100만권 돌파

### 전주시, 105만9553권 대출·반납

'책이 삶이 되는 책의 도시 전주'를 선포한 전주시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도서관 책을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이용건수 100만 권을 돌파했다.

시는 이런 내용으로 지난 2018년부터 시행된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움서(서)감서(서)'로 지난달까지 총 105만 9553권의 도서가 대출·반납됐다고 22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16만7742권의 도서가 움서감서 서비스를 이용해 대출·반

납된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가 시민들의 독서활동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대출을 위해 원거리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쉽게 빌려보고 반납할 수 있는 움서감서 서비스는 전주시 도서관 12곳과 공립작은도서관 27곳에서 운영된다.

움서감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eonju.go.kr)에서 회원 가입한 뒤 상호대차 서비스를 신청하고 가까운 도서관에 방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1일 전주중산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388청소년지원단 연합아웃리치를 실시했다.

## 청소년 전화 1388·위기청소년 사례 발굴 홍보

###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연합아웃리치 실시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21일 전주중산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1388청소년지원단 연합아웃리치를 실시했다.

1388청소년지원단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민간 자발적 참여조직으로, 이날 행사에는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전주중산초등학교, 완산구청, 완산경찰서, 전주YWCA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주푸른여자재단기초청소년센터 등 8개 기관에서

20여 명이 참여했다. 청소년지원단은 청소년 전화 1388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위기청소년 사례 발굴 및 청소년 지원기관 홍보에 힘썼다.

한편 1388청소년지원단은 112개 기관, 221명으로 구성돼 발견·구조지원단, 의료·법률지원단, 복지지원단, 상담·멘토지원단 등 4개 하부지원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1388청소년지원단에는 청소년을 돕고자 하는 분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가입문의는 전화(063-236-1388)로 가능하다.

/김윤상기자

## 대중교통 종사자 백신 접종

### 전주시, 26일부터 50세 미만 560여명 대상 자율접종 시작

전주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전라북도 자율접종 계획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종사자 56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접종 대상은 시내(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장애인 콜택시 등을 포함한 대중교통 종사자로 50세 미만(1972.1.1.~2003.12.31.출생자)에 한해 진행되며, 백신종류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이다.

접종 대상자는 질병청에서 발송되는 사전예약 안내문자를 받은 뒤 22일부터 24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nevr.kdca.go.kr)에서 예약을 하고 일정별로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는 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접종 후 충분한 휴식시간을 갖도록 관련 기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최근 전염성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면접촉이 잦은 대중교통 종사자 분들이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됐다"면서 "접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종사자분들께서는 접종일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율접종은 지자체가 지역 특성상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접종 대상자를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배정된 백신을 접종하는 방식이다.

/김윤상기자

## 전주시,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경과됐거나 주차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알림문자가 고지서와 함께 스마트폰으로도 고지된다.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자동차·건설기계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과태료 부과 전과 후에 기존 종이 고지서와 함께 알림문자를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통신회사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 소유자의 휴대폰 번호를 연계해 문자를 보내는 방식이다.

제공되는 알림문자 서비스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경과 ▲의무보험 가입 촉구 및 과태료 사전부과 ▲주차차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체납액에 대한 납부최고 ▲재신입류 예고 안내문 등이다.

/김윤상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